

투·타 잇박자 승률 5할 턱걸이

KIA 타이거즈 전반기 결산

83경기 42승 1무 40패 5위

트레이드로 박동원 영입

후반기 외인 완전체 기대



양현종

김도영

소크라테스

파노니

KIA 타이거즈가 2022시즌 전반기를 모두 마쳤다. KIA는 6월 초만 해도 LG와 0.5경기 차 4위로 3위 자리를 호시탐탐 노렸으나 6월 말부터 판도가 흔들렸다.

지난 달 24일 잠실 두산전부터 시작된 '악몽의 수도권 9연전'에서 2승 7패를 기록한 KIA는 중위권 경쟁에서 미끄러지는 듯했다. 하지만 막판 4연승을 거두며 전반기 5위로 마무리했다. 83경기 42승 1무 40

패(승률 0.512)는 들쭉날쭉한 행보를 보여준 KIA의 현주소다.

◇투수

KIA 선발진은 개막 초만 12경기 연속 켈리타스타트로 압도적인 투구를 펼쳤다. 그러나 마운드에서 의외의 변수가 발생했다. KIA는 새 외국인 투수 로니와 놀린이 부상

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는 악재를 맞았다.

로니는 10경기에 등판해 3승3패 평균자책점 5.89로 부진을 면치 못했고, KIA는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새 외국인 투수 파노니는 데뷔전인 지난 14일 잠실 LG전에서 4 1/3이닝 4실점으로 첫 패전을 기록했다.

국내투수들은 선전했다. 메이저리그에서 복귀한 에이스 양현종과 함께 신인왕 이의

리, 임기영, 한승혁 등으로 선발을 꾸린 KIA의 마운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외국인 투수들의 빈자리를 때웠다. 그러나 외국인 투수의 도움 없이는 한계가 있었다. KIA는 놀린의 교체여부를 검토하기도 했다.

◇타자

KIA는 개막전부터 매 경기 실책이 잇따르면서 경기의 흐름을 상대팀에게 내줬다. 시즌 초반만 해도 개막 후 13경기에서 단 2경기만 무실책을 기록한 KIA는 실책 1위로 하위권에 머물러있었다.

타선 침체와 수비 실책으로 부진을 겪었던 KIA는 트레이드로 박동원을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했다. 또한 5-6월은 나성범, 소크라테스, 김선빈이 타선을 이끌며 3위를 넘보기도 했다. 특히 지난 5월 MVP에 선정된 외인 타자 소크라테스는 월간 타율 0.415 5홈런 28타점으로 활약, 18승 8패를 이끌며 KIA의 중심타자로 거듭났다.

하지만 7월 들어 베테랑, 주축 타자들의 생산력이 떨어졌다. 최형우는 전반기 78경기에 출전해 타율 0.227 7홈런 35타점으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다. 황대인, 김선빈 등 5월 타격감을 과시했던 주축 타자들도 잠시 주춤하며 결정적인 순간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여기에 연일 맹타를 휘두르던 소크라테스는 지난 2일 코뼈 골절의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그나마 '슈퍼루키' 김도영의 방망이가 살아난 점은 호재다. 7월 한 달간 9경기에서 타율 3할, 9안타, 3홈런을 때려내며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후반기 외인 완전체 기대감

전력에서 이탈한 소크라테스와 놀린은 빠르면 7월말, 늦어도 8월 초 복귀를 앞두고 KIA의 후반기 순위싸움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부상 후 한 달이 넘도록 치료와 재활을 거친 놀린은 지난 13일 상무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선발 등판했다. 1%이닝 동안 3피안타 2실점으로 부진했지만, 직후 최고 구속이 시속 145km에 이를 정도로 몸 상태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놀린은 22일 KT와의 2군 경기에서 다시 등판할 예정이다. 소크라테스는 20일 재활군에 합류했다. /조혜원 기자



태권도 배우는 미국인들 광주국제태권도아카데미에 참가한 미국팀 교육생들이 20일 오전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품새, 겨루기 등의 교육을 받고 있다. /김생훈 기자

광주FC 주장 안영규 K리그2 27R 베스트11



안영규

광주FC 주장 안영규가 하나원큐 K리그2 2022 27라운드 주간베스트11에 선정됐다.

안영규는 20일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하나원큐 K리그2 2022 27라운드 베스트11 수비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는 지난 1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2 27라운드 FC안양과의 홈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비록 승리를 거두진 못했지만 퇴장으로 인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향한 투혼과 패기를 보여주며 팀 승점 1점 적립에 성공했다.

안영규는 경기 내내 활발한 오버래핑과 압박, 탄탄한 수비를 펼치며 팀의 무실점에 기여했다. 또 수적 열세 상황에서도 뛰어난 주장다운 리더십을 발휘하며 수비 안정화와 공격적인 경기 운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혜원 기자

광주체육인들 “김홍빈 구상권 청구 취소”

시체육회 성명서 발표

광주체육인들이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 취소를 촉구했다.

광주체육인들은 광주시체육회 명의로 성명을 내고 “김홍빈 대장의 등반이 개인의

영달이 아니고 국가가 국위 선양을 인정한 만큼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구상권 청구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밝혔다.

김 대장의 구조 비용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 취소 성명은 강기정 광주시장, 이병훈, 조오섭, 이형석 의원 등 지역 국회의

원, 체육단체, 유관기관 등 각계각층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시체육회도 이들과 함께 팔을 걷어붙여 유기적으로 협조해 관련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성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체육계는 정부의 청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만큼 구상권 청구에 대해 관계자들과 뜻을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은 “김홍빈 대장은 생전에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으로서 국

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 위인이다”며 “정부가 추서한 체육훈장 청룡장과 2021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선정 등 국위 선양의 업적을 기린 만큼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피길연 광주시산악연맹 회장은 “김 대장의 안타까운 영면이 헛되지 않도록 체육인을 비롯한 모든 분이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최진화 기자

조선대 협회장기 종별배드민턴 단체전 우승

결승서 인천대 3-2 제압

안혜원 단식 동메달 획득

조선대학교가 2022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전국종별배드민턴대회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 단식 동메달을 획득했다. 협회장기 단체전 우승은 38년만, 여자부로서는 처음이다.

조선대는 지난 14일부터 해남우슬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단체전 결승에서 인천대에 3-2로 승리, 37년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1라운드에서 대전과학기술대를 세트스코어 3-1로 꺾은 조선대는 8강에서 한체대에 3-1, 4강에서 한국국제대에 3-0 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인천대와 결승은 치열했다.

출발은 좋았다. 조선대는 1세트 단식에서 주장 유서연(4년)이 인천대 고효정을 2



조선대학교가 지난 14일부터 해남우슬체육관에서 열고 있는 2022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전국종별배드민턴대회 여자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조선대 제공

-0(21-15 22-20)으로, 2세트 단식에서도 안혜원(3년)이 인천대 조혜린에 2-0(21-15 21-16)으로 이기면서 앞섰다.

복식은 열세였다. 염수빈(2년)·김혜선(3년)이 0-2(7-21 8-21)로, 유서연·안혜

원 1-2(6-21 21-18 16-21)로 지면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지막 단식에 나선 배주영(1년)이 짜릿한 우승을 확정지었다. 배주영은 인천대 고은아를 상대로 2-1(9-21 21-17 21

-18)로 이겨 우승기를 품에 안았다.

1980년 남자부로 창단된 조선대는 김중수 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 재학시절인 1984년 협회장기 단체전 우승을 했고 38년 만인 올해 대회에서 우승을 일궈냈다. 여자부로서는 이 대회 첫 우승이다.

안혜원은 여자부 단식에서 부상투혼 끝에 동메달을 차지했다.

안혜원은 준결승에서 한체대 정민에 1-2(19-21 21-17 13-21)로 지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 3위를 기록했다. 안혜원은 거듭된 경기로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 움직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권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소화했다.

김동현 조선대 감독은 이번 대회 최우수지도자, 안혜원은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김동현 조선대 배드민턴 감독은 “선수층이 얇고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줬다”며 “광주시배드민턴협회에서 대회 출전이나 훈련 여건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아시아주니어 역도

신록 61kg급 우승

조민재 용상 동메달

한국 역도의 ‘라이징 스타’ 신록(20·고양시청)이 2022년 아시아주니어선수권에서 우승했다. 전남체고 조민재(3년)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신록은 19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대회 남자 61kg급 경기에서 인상 126kg, 용상 155kg, 합계 281kg으로 3개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합계 2위 티무르칸 마드하반(18·인도)의 기록은 265kg(인상 121kg·144kg)이었다.

신록은 2위와 큰 격차로 우승하면서도 “너무 아쉬운 경기였다. 다음에는 더 잘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그쳤다.

이날 신록은 인상과 용상 모두 1차 시기만 성공한 뒤, 2·3차 시기에서는 바벨을 놓쳤다.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는 한번의 시도만으로도 우승할 수 있지만, ‘세계 시니어 무대’를 바라보는 신록에게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었다.

같은 체급에 출전한 조민재는 용상에서 147kg을 들어 동메달 1개를 땀다.

조민재는 인상에서 114kg으로 4위에 그쳐, 가장 중요한 합계에서도 261kg으로 4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